



보도시점 2024. 4. 18.(목) 즉시 배포 2024. 4. 18.(목) 즉시

제주~하추자~완도, 신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 (주)송림해운, 카페리 여객선 5월 중 운항 예정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추자 도서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여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하추자-완도’ 항로 신규여객선 사업자 3차 공모에서 (주)송림해운(대표이사 김만천)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주-하추자-완도 항로 운항 여객선(‘ㄸ’호)은 여객 감소 및 적자 운영 등의 사유로 '23년 7월 17일부터 동 항로의 운항을 종료하여, 2023년 신규 사업자 공모를 2차례(1차: 6월, 2차: 8월) 진행하였으나 신청 사업자가 없었다.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3차 공모에서 (주)송림해운을 포함하여 2개 선사에서 응모했다.

제주단은 7명으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7일 제주단 대회의실에서 사업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들 선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계획, 인력투입 계획)▲사업계획(선박 확보 계획, 선박 운항계획, 선박계류시설, 여객서비스) 등을 평가 하였으며, (주)송림해운은 평가기준에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계획 등 사업수행능력과 여객선 투입시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주)송림해운에 대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예정으로 이르면 5월부터 ‘제주-하추자-완도’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 추자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과 추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 증가로 추자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제주단은 여객선 안전 관리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책임자	단 장	이승두 (064-720-2620)
		담당자	사무관	장순길 (064-720-2640)
		작성자	주무관	강현진 (064-720-264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4 - 67호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제주-완도(기항지 : 하추자) 항로에 대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사업의 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항로명 : 제주-완도 항로(기항지 : 하추자)
- 선정업체 : (주)송림해운 대표이사 김만천